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론(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집회3, 2-6. 12-14<또는>창세15, 1-6:21, 1-3>  
 [화답송] 시편128(127), 1-2. 3. 4-5(◎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제 2독서] 콜로3, 12-21<또는>히브11, 8. 11-12. 17-19>  
 [복음 환호송] 콜로3, 15. 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음] 루카2, 22-40<또는>2, 22. 39-40>

성가	8시 미사	입당 114	봉헌 211 212	성체 154 156	파견 102
	11시 미사	입당 114	봉헌 211 212	성체 154 156	파견 102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12월 28일)		송년미사(12월 31일)	천주의성모마리아대축일 (1월 1일)	주님공현대축일(1월 4일)	
	8시미사	교중미사	저녁 8시	오전 11시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휘안토니오	뜨락회	전진영베로니카	조선덕레지나	채성일토마스	1 구역
제 1 독서	채성일토마스	뜨락회	심태규미카엘	이창용레이몬드	강신희요한	1 구역
제 2 독서	정애리스텔라	뜨락회	-	이경란베로니카	김영선안젤라	1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내면 깊은 목소리

요셉 성인은 자기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일러주는 대로 좇아갑니다.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도,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갈 때도, 또 피난 갔다 나자렛에 돌아와 정착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는 요셉 성인의 성령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집트로 야반도주를 하기 전에 헤로데로부터의 위협 사인들이 감지되고, 요셉 성인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종종 보니까 말입니다. 물론 요셉 성인처럼 성령의 가리킴과 이끄심을 순순히 좇아간다 해서 현실적인 구체적 삶 속에서 온갖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겪어야 할 어려움은 그대로 다 겪어내야 할지 모릅니다. 다만, 적어도 성령을 따름에서 오는 깊은 내적 평화와 위로가 함께할 것이고, 그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었으면 하는 것은 성가정의 이집트 피난 생활이 그저 속히 지나가야만 할, 가능한 빨리 빠져나와야만 할, 그런 통과역이고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갖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집트 피난 생활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만큼 그 상황 속에 깊이 머물며 음미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필경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은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며 겪어 내야 하는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 성인이 겪은 이런 깊은 영적 체험들이 우리 삶 안에서도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리고 귀 기울이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적은 내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삶속에 개입해 들어와 간섭하시면서 기적을 만드시기도 하고, 내팽개쳐 두기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 속에서 이런 마음 자세가 깊게 형성될 때, 평화 중에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자신의 적대자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만들어 집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예수회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가족 그리고 이웃

줄지 않은 일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던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흔히 하는 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것은 역시 가족뿐이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아슬아슬한 느낌이 듭니다.

마침 오늘이 성가정 축일입니다만, 우리는 때론 이 ‘가정’의 의미를 자기 편리대로 한껏 축소해서 ‘나를 보호해 주는 보호막’ 정도로, 남들을 배제시키는 ‘폐쇄적 공동체’의 의미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받는 상처는 주로 누구에게 받는가? 상처의 원인은 주로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 던지는 상처 될 만한 심한 말도 한번 보고 말 사람이라고 흘러버리면 그만이고, 설사 먹살을 잡고 싸우더라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지원군으로 여겼던 가까운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폭력, 부모의 불화, 가족의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차마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나는 괜찮다, 괜찮을 거야’라며 자기최면을 걸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내 상처의 많은 부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집 하나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셋방살이가 있었습니다. 부엌 딸린 방 한 칸을 얻어 사는 신혼부부 외에도, 좀 넓은 집이면 위채 아래채 나누어 세를 사는 집도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특별히 권위를 내세우는 고약한 집 주인이 아니라면 보통 한 식구처럼, 적어도 좋은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세 들어 사는 아이들끼리는 좋은 놀이상대가 되어 주었고, 무엇보다 외출해서 아무도 없을 때 집도 봐주고, 편지도 받아주고, 연탄불도 대신 갈아주고, 소나기라도 오면 널어놓은 빨래도 걸어주고, 장독대 뚜껑도 덮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며 몸에 익히며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뚜껑을 대신 덮어줄 장독대가 없습니다. 세탁에서 건조까지 똑딱 해결해 주는

성능 좋은 세탁기가 있기에 빨래도 대신 걸어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서로를 챙겼던 이웃이 사라지다 보니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오로지 ‘내 가족만, 내 자식만’으로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은 통 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오로지 내 혈육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단란한 가정’인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TV를 보면서 뉴스에 비춰지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얘기들도 나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변 이웃에겐 눈 돌릴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코앞의 것만 쳐다보면서 달리기만 하는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종마(種馬)’로 길들여지는 것을 ‘가정의 송고함’등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총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루카 2,40)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주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은 창조주 하느님의 품위에 참여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달아 큰 애정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버팀목이고 큰 보화인 신앙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자녀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반해야 합니다.

이명찬 신부  
서울 대교구 오금동 성 요셉성당 주임

말씀의 향기

봄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다

저와 영화를 같이한 류승룡 씨는 나이 마흔이 넘어서 배우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난타의 공연배우로서 활동하였고, 난타를 그만두고 연극과 영화 일을 하면서도 영화 관계자들에게 물론 대중들에게도 주목받는 배우로 위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그도 결혼하였고,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살아야 하는 어깨 무거운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고, 연기자로서의 미래도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의에 빠진 그는 대학(연극과) 은사님을 찾아가서 “이젠 연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연기자의 꿈을 꾸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져서, 이제 그만 다른 일을 해볼까 합니다.” 라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곰곰이 듣던 은사님은 류승룡 씨가 연기를 그만두겠다는 말에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야, 이놈아 모든 꽃이 봄에만 피는 줄 아니? 어떤 꽃은 여름에, 또 어떤 꽃은 가을에, 그리고 매화 같은 꽃은 그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류승룡 씨는 대한민국 영화계에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배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마 그가 겨울에 핀 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제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가슴속에 영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세례받고 성당을 다니고는 있지만, 무늬만 신앙인으로서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차라리 신자들을 욕보이지(?)말고, 차라리 진심을 다해 내가 가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도 완벽하다고 느낄 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마다 류승룡 씨 은사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어떤 형제는 좀 일찍 꽃이 피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자매님들은 여름에 꽃이 피어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나는 아직 주님이 꽃을 피우는 시기

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다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살면 언젠가는 꽃을 피워 주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갈 때 아마 주님은 저에게 아무 의심도 없는 가장 예쁜 꽃을 피우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꽃 언젠가 저에게도 꼭 피게 해달라고.

원동연 제네시오  
리얼라이즈픽처스(주)대표



“저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계속 미소를 짓습니다.”

글\_마더 데레사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 요한 묵시록

###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환시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묵시문학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서문(묵시 1, 1-20)과 결문(묵시 22, 6-21)을 제외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묵시 2-3장)입니다. 말 그대로 짧은 편지의 형태로 된 부분입니다. 요한 묵시록 안에서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일곱’ 역시 창조와 관련하여 ‘완전’ 또는 ‘완성’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비슷한 형태 안에서 신앙인들에 대한 칭찬과 경고를 표현하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앞으로 보여질 환시를 통해 모두 이루어집니다. 요한 묵시록의 둘째 부분은 4, 1-22, 5에 이르는 환시를 통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그리스도)에 대한 환시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이라 부를 수 있는 환시로 끝납니다.

요한 묵시록의 많은 환시는 재앙을 소개합니다.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을 통해 보여지는 재앙은 흔히 사람들이 이 책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는 재앙의 책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하지만 요한 묵시록의 환시는 대상을 구분합니다. 재앙을 소개하는 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선택된 이들’에 대한 환시(묵시 7장)와 ‘두 증인’ (묵시 11, 1-14)에 대한 환시는 믿음을 간직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재앙에 대한 환시가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이들은 머지않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환시는 구약성경의 말씀들,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모자이크처럼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 세부적인 이미지들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 요한 묵시록은 예언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 묵시록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묵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상징적인 언어와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겉으로 보여 지는 것과는 달리 신앙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 묵시록은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과 위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야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12월28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권베드로(태문)	권바실리오
	연	박데레사(병순)	권바실리오
	연	Fr. Daly	심데레사
	연	차예로니모(창섭)	차리디아
	연	이마리아(옥님)	차리디아
	연	박베드로/마리아	박데레사
	연	박글라라/자손들가정	박데레사
	연	김요한/홍모니카	정분다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친정부모님	박데레사
	연	부모님	임루시아
	연	전창민	정아가다(청자)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서데레사(춘애)	심데레사
	생	가정과사업장을위해	육아오스딩/아가다
12월30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연	양로사(종순)	영파트리샤
	연	김형태	김엘리사벳
1월 2일 금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가족
	생	본당신부님	익명
1월 3일 토	연	돌아가신성당교우들	꾸리아
	생	전다니엘(순복)	전데레사
	생	김케네스(관용)가족	김엘리사벳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79	210	-	289
헌 금	\$559	\$1,181	-	\$1,740

< 교무금 > \$6,930

조관식(11-12) 강시구(11-12) 정일양(12)  
 유한섭(10-12) 정영언(11-12) 조상호(11-12)  
 이재우(11-12) 김세록(11-12) 한동설(7-12)  
 최순일(12) 원광희(9-12) 김정탁(1-12) 정창희(12)  
 강신호(11-12) 최응일(11-12) 차영화(12)  
 이순열(9-12) 채성일(10-12) 김수연(11-12)  
 육승주(12) 성동화(10-12) 유인웅(9-12)  
 김명환(1-2/2015)

< 성소후원금 > \$200

김세록(7-12) 정창희(12) 차영화(12)  
 김종성(1-1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송분학 \$100

< 대림초 >

김영순 \$50

~~~~ 오늘 간식은 권영현 바실리오/황국명 디도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2014년 한 해 동안  
본당의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전례 안내

- 12월 31일(수) 저녁 8시 송년 감사 미사  
\* 31일 수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1월 1일(목)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의무축일입니다.\*
- 1월 3일(토) 성모신심미사(꾸리아월례회)
- 1월 8일(목) 성시간

◆ 환자봉사체 : 1월 2일(금) 아침미사 후부터

◆ 지속적인 성체 조배

1월 2일(금) 저녁 9시부터 1월 3일(토) 아침 7시까지

◆ 2015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대부모/대자녀 만남의 날

일시 : 1월 11일 주님세례축일 교중미사 후  
내용 : 대자녀들께서 세례대부모를 초대  
신청 및 문의 :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신청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12월, 1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 구역반장회의 : 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사목회의 : 다음주 오후 4시 사목회장 댁

◆ 북가주 청소년 대회

일시: 2015년 1월 3일 오전 8:30 ~ 오후 7:30

장소: 산호세 성당

참가대상 : Youth(8~12학년) &  
Young Adults(나이제한 없음)

참가비 : \$30

참가신청 : <http://www.koreancatholicyouthday.org/>

문의: 김민규 바오로 925-698-9270

[minkyukim1027@gmail.com](mailto:minkyukim1027@gmail.com)

\* 신청서와 참가비는 성당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체장들은 2014년도 결산서와 행사보고서 및  
2015년도 예산서를 총무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및 제출 : 사목회 총무 510-292-5815

[ygandrew55@gmail.com](mailto:ygandrew55@gmail.com)

◆ 각 단체장들은 2014년도 회계장부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및 제출 : 장찬호 안드레아 510-357-5669

◆ 2015년 떡(간식) 신청 받습니다.

한 가정이 하면 \$300, 두 가정이 같이 하면 \$150씩

문의 : 성모회장 장희숙 루시아 510-372-7111

\* 2014년에 간식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은행 휴무라 공지되었던 오늘은 은행 정상업무를  
합니다. 다음주 1월 4일에 은행 휴무입니다.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다윗(12/29) : 유인웅, 김승우
- \* 사비노(12/30) : 김영준
- \* 바실리오(1/2) : 조진행, 권영현
- \* 제노베파(1/3) : 옥지홍

안국학교 소식

- 12월 13, 20, 27 : 겨울방학
- 2015년 1월 3일 : 개학